

학교법인 창성학원

2025학년도 제8회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2
재적임원	8	2
참석임원	5	0

1. 회의일시: 2025.08.28.(목) 10:00-11:49

2. 회의장소: 대덕대학교 정곡관 10층 소회의실 또는 Zoom화상회의

3. 회의 소집 통보일: 2025.08.20.(수)

4. 임원 출석 현황

□ 참석인원(5명)

- 이사(3명): (직접참석) 김대성, 김태근, 임정섭
- 이사(2명): (Zoom화상회의 참석) 김조용, 이정민

□ 불참 인원(5명)

- 이사(3명): 강경래, 김현리, 성차용
- 감사(2명): 조현준, 황인상

□ 배석자:

- 법인사무국(3명): (간사) 김영훈 총무처장, 윤지연 과장, (서기) 최보경 담당

5. 회의안건

이사

임정섭

이사

이정민

이사

김조용

가. 의결 안건

- 제1호: 학교법인창성학원 정관 개정(안)
- 제2호: 중등학교 교원 복직 동의(안)
- 제3호: 중등학교 교원 휴직 동의(안)
- 제4호: 중등학교 교원 신규임용 동의(안)
- 제5호: 2026학년도 사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위탁추진계획(안)
- 제6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비정년트랙) 신규임용 동의(안)
- 제7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비정년트랙 포함) 재임용 동의(안)
- 제8호: 2025학년도 대덕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제9호: 대덕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DDU Vision2030) 재수립(안)
- 제10호: 대학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안)
- 제11호: 기준액 초과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일부 처분 확정(안)

나. 기타 협의 및 보고안건

- 제1호: 2025학년도 대덕대학교 교비회계 예산전용 보고

다. 기타 안건

- 제1호: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임원 선임 건

6. 회의 내용

가. 성원 보고

2025학년도 제8회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17조에 의거 재적 이사 8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였으므로 이사회가 성원이 되었음을 간사가 보고하다.

나. 개회 선언

의장(이사장 임정섭) 2025학년도 제8회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재적이사 8명 중 5명이 참석을 하였다고 말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Zoom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한 김조용, 이정민 이사께 감사의 말을 전하다. 학교법인창성학원 정관 제27조에 의거하여 보고 안건부터 상정하되 보고는 생략하겠다고 하다.

(참석 이사) 동의하다.

다. 의결 안건

이사

임정섭

이사

이규민

이사

김조용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1호 학교법인창성학원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이 안건에 대해 지난 이사회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정관 개정은 이 사정수의 3분의 2가 동의하여야 의결이 가능하다고 하다. 회의 당시 5명의 이사가 있어 부결 되었으므로 금일 다시 동일한 안건을 상정하였는데 오늘도 5명의 이사가 참석을 하여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다음 회 차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다시 다루겠다고 하다.

(*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제1호 학교법인창성학원 정관 개정(안)은 다음 회 차 이사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1호 학교법인창성학원 정관 개정(안): 부결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2호 중등학교 교원 복직 동의(안)을 상정하다.

(간사 김영훈)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육아휴직과 난임휴직의 종료로 인한 복직이라고 하다. 동의 및 재청을 요구하다.

(*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 및 재청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제2호 중등학교 교원 복직 동의(안)은 원안의 결 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2호 중등학교 교원 복직 동의(안): 가결

순번	소속	성명	직위(급)	발령사항	발령일자
1	대전중앙고등학교	정	교사	복직을 명함.	2025.10.05
2		오	교사	복직을 명함.	2025.09.01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3호 중등학교 교원 휴직 동의(안)을 상정하다.

(간사 김영훈)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2호 안건과 연결된 사항이라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이규민

이사

김영훈

(이사 김태근) 이 분에 대해서 왜 경고장을 부여했는지 묻다.

(간사 김영훈) 확인결과 6월 말 경에 임신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휴직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지체 없이 학교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나, 8월에 이 사실을 알렸으므로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한 후 구두경고를 한 상황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학교장께서 구두경고를 한 사항인지 묻다.

(간사 김영훈) 그렇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동의 및 재청을 요구하다.

(*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 및 재청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제3호 중등학교 교원 휴직 동의(안)은 원안의 결 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3호 중등학교 교원 휴직 동의(안): 가결					
순번	소속	성명	직위(급)	발령사항	발령일자
1	대전중앙 고등학교	오	교사	휴직을 명함. *육아휴직: 2025.09.01.~2026.02.28	2025.09.01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4호 중등학교 교원 신규임용 동의(안)을 상정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4호 안건과 관련하여 그 사이에 학원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해당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하다.

(간사 윤지연) 최근 7월부터 유선 상으로 발생한 민원 전화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하다. 신분을 밝히지는 않고 전화를 하였는데 신문기사와 매스컴을 통해 재단의 상황을 알고 있고 교육청 실태점검을 통해 의문이 해소되었는데 왜 의결을 진행하지 않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하다. 대전 시민과 언론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이사회 회의록을 모두 정독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다. 또한 이사회에서 사적인 영역이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언급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보기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다. 그리고 채용안전에 대해서 본인과 상관없다고 한 이사에 대한 교체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이정범

이사

김소영

(이사 김태근) 민원 내용은 계속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하다.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와 전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진행되었는지가 궁금하다고 하다. 금일 이사회에 참석한 이유는 교육부에서 면접관련 서류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하여 참석하였는데 해당 서류 일체가 없다고 하다. 면접 관련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다. 문제가 없다고 하였지만 점검 결과 동점자 처리기준과 같이 없었던 것을 만들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다. 해당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무언가 처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다. 그리고 후보자를 뽑으려면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철회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다거나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유 없이 후보자를 뽑았다고 하다. 그 결과 합격이 취소된 자가 소송을 걸어왔다고 하다. 그러므로 이 안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본인도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다. 또한, 전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안전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다. 그리고 면접관이 누구인지, 면접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등 자료가 있어야 의결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전형관리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여 달라는 말인지 묻다.

(이사 김태근) 전형관리위원회의 계획과 회의록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다. 또한 면접관이 5명이 모두 들어갔는지, 공통질문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다.

(간사 윤지연) 이전 회의에서 표준문답은 제공하면 안 된다고 하여 제공하지 않았는데, 해당 자료도 제공을 해드려야 하는지 묻다.

(이사 김태근) 표준문답도 제공해달라고 하다. 또한 출제자가 누구였는지도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해당 부분은 인비사항인 것 같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대학을 예로 들면 공고에서부터 전형절차를 거쳐 임용 대상자임이 확정이 되면 총장이 임용 제청을 한다고 하다. 우리가 임용 제청 전 단계의 프로세스를 모두 확인하고 검토한 후에 의결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다. 그 전까지의 단계에 대한 프로세스는 총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하다. 따라서 그 전의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의결했다 하여 이 사들에게 귀책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다. 그렇다면 법인에서 진행한 채용과정도 마찬가지로 하다. 법인에서 한 그 전 단계에 대한 프로세스는 법인에서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이정민

이사

김조용

(이사 김태근) 심의의결이란 무엇인지 묻다.

(이사 김대성) 프로세스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지 지금 발언하신 면접에 누가 참석했는지 등까지 확인할 것은 아니라고 하다. 그래서 지난 회 차 이사회에 발언했듯이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그렇다면 수사의뢰를 하라고 하다.

(이사 김대성) 지금 관련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누구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지 묻다. 잘됐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서류를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그동안 김태근이사에게 임용서류를 모두 보여드렸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그래서 수사의뢰를 하자는 것이라고 하다. 그 과정에 의견이 있을 것이고 또 합격취소가 된 사람이 소송을 진행한 사항이니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고 정리가 될 것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일전에 문제가 없으니 의결을 하자고 했는데 잘못된 사항이 도출되었다고 하다. 잘못된 사항을 알았으면 그 뒤의 사정을 찾아봐야 한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교육청에서 지적을 해서 치유가 됐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무엇이 잘못되어 치유를 했는지 아는지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해당 부분은 지난 이사회 때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하다. 제3차 시험의 면접 계획 안을 마련할 때 동점자 처리기준을 세워서 합격자 발표 후 면접을 진행하였다고 하다. 교육청에서 진행한 실태점검은 그 기준에 대해 사전에 임용 후보자들에게 고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하다. 이에 따라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합격한 후보자에 대해 합격을 취소하였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면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제2차 시험의 합격자에 대한 문제였다고 하다. 제

이사 임정섭

이사

이규민

이사

김조용

3차 면접시험의 대상자를 잘못 보낸 것이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3차 면접 계획 안에는 2차 합격자를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동점자 처리 기준을 만든 사람이 누구이며, 또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다.

(이사 김조용)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와중에 1학기가 모두 지났다고 하다. 중고등학교 교사 임용에 대한 지도와 감독 권한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있고, 지도·감독 관할청에서 점검을 모두 진행했으며, 지도·감독 관할청의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요구 사항을 법인에서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면접관이 누구인지, 어떤 질문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법인 이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동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하는바, 본인은 이사회 회의에서 특정한 이사에게만 교원 채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 범위가 아니라고 본다 고 하다. 또한 채용과 직접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이사 개인이 유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반대한다고 하다. 교원 임용에 대한 안전을 심의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위법적인 사항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하다. 김태근 이사가 이사회에서 중등교원 교원 채용 미리 운운하며 문제를 제기하여 지도·감독 관할청에서 조사까지 완료했다고 하다. 지도·감독 관할청의 실태점검 결과는 채용 관련 비리가 아니고 착오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후속 조치로 합격을 취소 하라고 했다고 하다. 일부 이사들이 주장한대로 비리가 있었다면 실태점검을 할 때 모두 밝혀졌을 것 같다고 하다. 따라서 금회 이사회에서 교원 임용 안전은 의결되어야 한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시험문제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공통문항을 출제한 사람은 감금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다. 공통문항을 출제한 사람은 감금이 되어야 하는데 밖으로 돌아다녔다고 하다. 그런 면접을 어떻게 믿는지 묻다.

(이사 김조용)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다시 사실 확인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법인 얘기를 왜 교육부에 의뢰를 하냐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중등학교 신규임용 동의(안)을 수차례 상정하면서 본 흐름을 보면 지난

이사

임정섭

이사

이정민

이사

김소용

이사회 때 교육부로 부터 김태근이사께서 추가로 면접 위원을 위촉한 것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래서 그 서류를 드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또 감금 등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반대한다고 하다. 어떠한 서류를 주어도 반대할 것 같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교육부 하 사무관에게 면접서류를 보지 못해서 모르겠다고 했고, 면접서류를 보고 하자가 없으면 통과를 하겠다고 했다고 하다. 그런데 지금 면접 관련 서류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다. 1차에서 2차 까지 온 것은 교육청에서 했는데 합격자 발표에서 영어교과와 국어교과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말을 했던 것이라고 하다. 면접서류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다. 교육부에서도 본인이 도착 하자마자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다. 이것은 본인이 잘 못 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잘못했다고 하다. 법인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왜 학부형과 합격자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서류를 보여주어도 의결을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제대로 뽑았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정말 제대로 뽑았다고 하다.

(이사 김조용) 교육부에서 누가 채용관련 자료를 이사에게 보여주라고 지시하였는지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하 사무관계서 법인에 전달했다고 하다.

(간사 윤지연) 지난 이사회에서 김태근 이사께 면접관련 자료 일체를 1차적으로 제공했는데, 그 이후에 하 사무관의 말로는 김태근 이사께서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면접위원을 추가로 임명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던 것 같다고 하다. 그래서 당시 성차용 이사가 면접위원이었는데 참석하지 않아 추가로 위원을 임명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고 답변하였고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라고 했다고 하다.

(이사 김조용) 면접관을 추가 임명한 서류를 보여주라는 것인지 묻다. 그럼 교육부의 지시사항이니 열람할 서류를 제공하라고 하다.

(*학교법인창성학원 윤지연 총무과장이 김태근이사에 관련 서류를 제공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이재민

이사

김조용

(이사 김태근) 3차 면접관련 전체 서류를 달라고 하다.

(*학교법인창성학원 윤지연 총무과장이 제3차 면접 서류 일체를 제공하다.)

(이사 김조용) 서류를 서둘러 검토해달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왜 알기알부 하는지 묻다. 그럼 보지 않겠다고 하다. 표결하라고 하다. 의결인지, 부결인지, 보류인지 결정하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김태근 이사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다.

(이사 김태근) 서류를 보지 못했으니 당연히 보류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지금 서류를 검토하시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안봐요. 싫어요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서류 보시는데 5분도 안걸리니 보시라고 하다. 다음 안건이 금 번 안건 과 연동되는 안건이니 서류를 검토해보라고 말하다. 지난번에 요청한 면접 자료까지 다시 요청하여 제공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2월 6일에 표준문답출제위원회가 진행되었는데 이 분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묻다. 면접전형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묻다.

(간사 윤지연) 면접은 2월 10일과 11일에 진행되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그렇다면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출제위원들이 어디 있었는지 묻다. 감금했는지 묻다.

(간사 윤지연) 표준문답출제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없었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교육청의 표준 지침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면접을 위해 표준문답을 출제한 사람들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어디

이사

임정섭

이사

이주연

이사

김조용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는지 묻다.

(이사 김태근) 그 부분은 상식이라고 하다.

(이사 김대성) 표준문답을 출제하면 그대로 모두 면접을 진행할 수 있지만, 면접위원들에 따라 파생질문을 할 수도 있고 문답과 동일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고 하다.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 보는 날 출제위원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있지만 면접 출제위원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표준문답출제위원에 대한 별도 관리가 필요했다면 교육청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고 하다.

(이사 김대성) 해당 위원들이 서약서 등을 작성하는지 묻다.

(간사 윤지연) 서약서는 모두 작성하였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면접시험 시행 계획 안에 대하여 요청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그렇다면 김태근 이사께서 서류를 검토하시는 동안 정회하겠다고 하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묻다.

(이사 김태근) 15분 정도 필요하다고 하다.

(* 참석이사 동의하여 10:45에 정회하고 10:59에 속회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정회하는 사이에 김태근이사께서 감금에 대해 발언한 부분을 교육청에 질의를 했다고 하다.

(간사 윤지연) 표준문답출제위원을 별도의 공간에 면접이 시작되기 전 까지 감금했는지에 대해 교육청 김 사무관에 질의를 했다고 하다. 표준 계획 안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하다. 교육청에서도 그렇게까지 하는 법인은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다. 또 우리 법인처럼 표준문답까지 출제하는 법인도 없고, 만약에 그것이 의구심이 든다면 김 사무관께서 본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면 답변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하다. 실제 별도로 위원들을 관리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평가원에서 진행할 때 이루

이사

임정섭

이사

이권연

이사

김소영

어지지 각 법인에서 면접을 진행할 때에는 그렇게 하는 법인은 없다고 했으며, 본인들이 표준안에 그러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고 했다고 전달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매뉴얼대로 진행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안전에 대한 의견을 묻지 말고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살펴본 결과 면접에 대해 전혀 기준이 없다고 하다. 표준문답을 출제하였으면 무엇을 물어보고자 하는지에 대해 출제경향이 있었을 것이고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했는지에 대해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로 선발되었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김태근이사 주장에 대해 아니라고 하다.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 임용절차를 밟았다고 하다. 김태근 이사께서는 반대를 하기 위한 사유와 이유를 계속 만드는 것 같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그렇다면 의결이 되고 난 이후에 책임소재는 없는 것인지 묻다. 확실하게 이야기 해달라고 하다.

(이사 김대성) 그렇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그렇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그렇다면 본인은 의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의결 이후에 면접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모두 조사해도 상관없는지 묻다.

(이사 김대성) 조사 하시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조사기관에서 조사 의뢰가 오면 우리는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면접에 관한 서류를 살펴보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다. 그래서 보류를 해달라고 제안했다고 하다. 그런데 찬성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의견을 달라고 하다. 찬성과 반대를 강요할 이유는 없고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라고 하다. 우리 법인은 전형과정을 문제없이 절차를 밟아 진행했다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이근민

이사

김소영

(이사 김대성) 법인에서 프로세스를 거쳐서 상정된 안전이므로 디테일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법인에서 프로세스를 잘못 이행하고 수행한 것으로 그 책임을 지면 된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묻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을 확답을 해달라고 하다. 본인이 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일체의 채용서류 내용을 다음에 김태근이사께서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묻다.

(이사 김태근) 그렇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그것은 안 된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이사께서 감사관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묻다.

(이사 김태근) 그렇다면 의결을 하던지 보류를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다.

(이사 김대성) 김태근이사가 수사관도 아니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그렇다면 참석이사의 의견을 묻겠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찬성하다.

(이사 김태근) 반대라고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보류도 아니고 반대하시는거냐고 묻다.

(이사 김태근) 보류하던지 반대하던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데 보류해 달라고 우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못해서 저는 반대라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이태근 이사 김대성

의장(이사장: 임정섭) 보류하지말라는 말은 한적이 없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그럼 보류라고 하다.

(이사 이정민) 찬성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본인도 찬성하다.

(이사 김조용) 찬성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4명의 이사는 찬성하고 1명은 보류의 의견을 주었다고 하다. 보류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정확하게 면접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한 보류한다고 하다.

(간사 윤지연)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민원인도 그렇고 오늘 이사회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 이 안전에 대해 정확하게 부결이면 부결, 의결이면 의결이지 계속 보류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하다. 이 안전이 처리가 안 되면 다른 곳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할 테니 오늘 그 결과를 확실하게 해달라는 입장을 주었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현재 이 안전은 4명은 찬성이고 1명은 보류라고 하다. 중요한 안전이니 이사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다. 그렇다면 일단 보류를 하겠다고 하다. 따라서 제4호 중등학교 교원 신규임용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4호 중등학교 교원 신규임용 동의(안): **보류**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5호 2026학년도 사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위탁추진계획(안)을 상정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5호 안전은 제4호 안전과 일부 연계가 되는 사항이라고 하다. 이 안전은 2026학년도 신규교사 채용과 관련된 사항이며, 3개교 중등학교로부터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5명의 정교사 채용 의사를 교육청에 전달하였고 채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도달했다고 하다. 하지만 제4호 안전이 통과되어 2025학년도 임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가능 회신서가 도착한 상황이므로 제4호 안전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논의의 필요는 없을 것

이사  이사  이사 

같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차후에 재상정하자고 하다.

(이사 김태근) 5명 선발하는 안건은 이사회에 올리지 않고 가능한지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이사회 의결사항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하지 말라고 하다. 올리고 나서 판단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묻다.

(간사 김영훈) 교육청에서 채용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도착하면 그 이후에 산하학교에 수요조사를 통해 인원을 확정하여 교육청에 채용협의를 진행한다고 하다. 채용협의를 대한 회신이 교육청에서 도착 하면 그 검토 결과를 근거로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안건이 의결되어야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다. 절차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그렇다면 제5호 2026학년도 사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위탁추진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5호 2026학년도 사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위탁추진계획(안): 보류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6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비정년트랙) 신규임용 동의(안)을 상정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수차례 상정한 안건이므로 바로 의견을 묻겠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찬성하다.

(이사 김조용, 이정민) 찬성하다.

(이사 김태근) 반대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반대의 사유를 말해달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앞선 이사회에서 발언했던 사유와 동일하다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이주민 이사 김조용

의장(이사장: 임정섭) 그렇다면 학교의 재정 상황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인지 묻다. (*김태근 이사가 그렇다고 답변하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들이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근 이사께서 책임질 수 있는지 묻다.

(이사 김태근) 책임지라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이것은 김태근이사께서는 책임질 수 없고 법인과 대학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이사회에 의결되지 않는 사항을 발표한 분이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다고 하다. 중등교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발표는 할 수 있고 임용은 되지 않았다고 하다. 임용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그렇다면 반대라고 하다. 법인에서 알아서 진행하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그렇다면 앞서 말한 사유로 제6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비정년트랙) 신규임용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6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비정년트랙/교육전담조교수) 신규임용 동의(안): 보류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7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비정년트랙 포함) 재임용 동의(안)을 상정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이 교수와 관련하여 징계의결 절차가 함께 이루어지면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하여 대학에 최종 판단이 나왔는지 공문을 보내 물었다고 하다. 하지만 현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징계의결 안건을 올리지 못했다고 하다. 따라서 징계의결과 별건으로 재임용은 의결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별건으로 생각하자고 하다. 찬성하다.

(이사 김태근) 반대하다. 보류하지 말고 가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징계의결 요구와 재임용은 별건으로 진행하자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이근만 이사 김소영

의장(이사장: 임정섭) 재임용이 되고 구성원이 된 상태가 된 이후에 징계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재임용이 안 되면 징계절차도 불가능하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재임용 발령장을 왜 냈는지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재임용은 이미 당사자에게 2개월 전 통보가 되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고, 그간 우리 법인에서는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었다고 하다. 재임용이 되지 않으면 더 문제가 된다고 하다. 김태근등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하였다면 이미 처리되었어야 하는 안전인데 불참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부결하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7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비정년트랙 포함) 재임용 동의(안)의 안전도 앞선 제6호 안전과 마찬가지로 사유로 보류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7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비정년트랙 포함) 재임용 동의(안): 보류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8호 2025학년도 대덕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다.

(* 대덕대학교 장화식 부총장과 박찬민 기획예산팀장이 안전설명을 위해 11:13에 배석하다.)

(배석 박찬민 팀장)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이번 추경은 적립금은 편성이 안 된 상황이고, 대학에서는 당초 승인된 적립금 20억을 가지고 살림을 진행하였다고 하다. 그러던 중 우리 대학이 1980년 개교 이래 45년째 운영되다 보니 각종 시설이 노후화되고, 특히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 노후화되었다고 하다. 최근에는 싱크홀 발생, 누수 등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대폭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라이즈 32억, 혁신사업에서 11.4억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비회계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다. 이번 안전인 제2차 추경 안전에는 1차 추경에서 등록금 인상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과 비등록금회계에서 2억 8천이 감해져서 전체적으로 41억이 편성되었다고 하다. 이번에는 적립금에 대한 부분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에는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 적립금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여 추경 안전을 상정해야할 것 같다고 말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이주연 이사 김소영

의장(이사장: 임정섭) 적립금은 빠져있다는 말인지 묻다.

(이사 김대성) 예산절감과 수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교비회계에서 대체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사업비를 받아 교비를 절감하는 추경 안 인지 묻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그렇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평의원회 자문 사항인지 묻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그렇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그래서 부결이라고 하다. 평의원회 의장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문 받은 것은 무효라고 하다. 의장이 해촉된 것에 대해 교육부에 보고했는지 묻다.

(이사 김대성) 교육부 보고사항은 아니고 대학의 문제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평의원회 의장과 관련한 문제라면 의장이 대학에 문제제기를 한 상황인지 묻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대로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체제로 가면 되는 것이라고 하다. 이 안건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사업비를 받는 목적이 상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추경예산은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하다. 문제가 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다. 추경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김태근 이사는 박 교수가 의장이라 박 교수가 의장인 상태에서 회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 평의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평의원회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문서가 내려온 것은 사실이고, 그와 관련해서 종결되지 않는 것이 있고 9월 달 내에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하다. 해촉이 되었다

이사 임정섭 이사 이근민 이사 김대성

고 하더라도 현재 운영되는 평의원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평의원회에서 다루어진 사항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기를 요청하며 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임을 덧붙인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추경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면 학교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진행을 우선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절차를 밟아서 진행 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다.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부서 간 예산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9월에 해결되는 상황을 보고 진행하자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대학에서 교직원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예산편성에서는 낭비적인 요소가 절대적으로 없다고 하다. 국고사업을 받아 교비를 대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대학평의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으며 그것에 대해 가부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다. 그렇다면 예산편성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여 지니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평의원회 의장이 해촉되는 사유가 명확했다면 관계없지만 해촉의 사유가 없는데 해촉된 것으로 보여 진다고 하다. 현재 그 분이 문제가 있는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주는 것은 해당자에 대한 예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다.

(이사 김조용) 일반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는 예산 편성 목적이 타당한지,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한 금액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입과 지출이 정당하게 편성되었는지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등을 판단해야지 다른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하다. 평의원회와 관련해서는 해당 평의원이 해촉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는 해촉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다. 또한 평의원회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었고 이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것이므로 예산 편성 절차상의 문제도 없다고 하다. 해촉된 평의원을 이유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다른 평의원들이 심의를 통해 의결정족수를 맞추어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고 말하며 정상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서 깊이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김조용이사께서는 평의원회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 심의된 안건이므로

이사

임정섭

이사

이권민

이사

김조용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 것 같다고 하다. 김태근 이사의 의견은 어떤지 묻다.

(이사 김태근) 앞서 발언한 바와 같다고 하다.

(이사 이정민) 김조용 이사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말하다.

(* 대덕대학교 장화식 부총장과 박찬민 기획예산팀장이 안건설명을 마치고 11:36에 퇴실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그렇다면 제8호 2025학년도 대덕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참석이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류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8호 2025학년도 대덕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보류**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9호 대덕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DDU Vision2030) 재수립(안)을 상정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8호 안건도 동일한 입장인지 묻다.

(이사 김태근) 그렇다고 답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그렇다면 제9호 대덕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DDU Vision2030) 재수립(안)은 참석이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류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9호 대덕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DDU Vision2030) 재수립(안): **보류**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10호 대학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안)을 상정하다.

(* 대덕대학교 김명배 시설관리팀장이 안건설명을 위해 11:36에 배석하다.)

(배석 김명배 팀장)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무창포연수원과 교외 생활관이 수지적자인 상태임에 따라 처분을 하겠다는 것이고, 처분을 위한 감정가가 무창포연수원은 15억, 교외생활관은 7억 정도라고 하다. 이 안건에 대해 동의 및 재청을 요구하다.

(이사 김태근) 왜 처분을 하려고 하는지 묻다.

(배석 김명배 팀장) 무창포연수원의 경우 인건비, 수도광열비,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정기적

이사 임정섭 이사 이정민 이사 김조용

인 점검 등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 들어가는 금액이 대여료 보다 크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대여사용료는 7백만원인데 지출되는 금액이 이 금액 이상이라는 것이 맞는지 묻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다.

(배석 김명배 팀장) 운영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없었던 것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그렇다면 운영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닌지 묻다.

(배석 김명배 팀장)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소방시설 등은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토지가격은 계산해보았는지 묻다.

(배석 김명배 팀장) 현재는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갖고 있으면 좋겠다고 하다. 팔 이유가 없다고 하다.

(이사 김조용) 매각에 동의하다.

(이사 김대성) 동의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본 안건은 재산 처분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사님 8분이 모두 나올 때 다시 한 번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하기로 하다.

(* 대덕대학교 김명배 시설관리팀장이 안건설명을 마치고 11:43에 퇴실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10호 대학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안)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10호 대학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안): **보류**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11호 기준액 초과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일부 처분 확정(안)을 상정하다.

(* 학교법인창성학원 총무과 윤지연 과장이 안건설명을 위해 11:44에 배석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이권민 이사 김조용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6회 이사회에서 이미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된 사항인데,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결재계좌를 확정하여 재 상정한 사항이라고 하다.

(배석 윤지연 과장)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이사 김태근) 지난번과 동일한지 묻다.

(배석 윤지연 과장) 그렇다고 하다.

(*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 및 재청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제11호 기준액 초과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일부 처분 확정(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11호 기준액 초과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일부 처분 확정(안): **가결**

1) 처분 예정 금액: 금500,000,000원(금오억원)

2)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변동 현황

구분	기준액(천원)	보유액(천원)	확보율(%)	비고
처분 전	18,023,636	25,211,050	139.9	
처분 후	18,023,636	24,711,050	137.1	▼2.8%

3) 처분 사유
 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등 전출금 증대를 통한 법인 책무성 강화 및 교육재정 부담 완화
 나. 고유목적사업(법인 일반)회계 전출 증대를 통한 법인 재무구조 안정화
 다. 운영자금(임금 지급, 세금 납부, 소송비 지불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
 라. 노후 수익용 건물 유지·보수를 통한 수익률 증대 방안 강구

4) 처분 예금(계좌)

구분	은행	계좌번호	잔액(원)	처분금액(원)	처분후 잔액(원)
정기예금 (기본재산)	수협은행	1200-7375-5134	1,910,092,541	500,000,000	1,410,092,541

5) 처분금 사용계획: 법인 산하학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등 전출, 2024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과년도 세금 납부, 법인 각종 소송 비용 납부, 법인 임직원 임금 지급, 수익용 건물 유지·보수비용 등 수익사업 활성화

마. 기타협의 및 보고안건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1호 2025학년도 대덕대학교 교비회계 예산전용 보고를 상정하다.

(* 참석이사가 주어진 자료를 통해 상정된 보고안건을 자세히 살펴보다.)

이사 임정섭 이사 이권민 이사 김조광호

의장(이사장: 임정섭) 기타 의견이 없으면 보고를 마치겠다고 하다.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 제1호 2025학년도 대덕대학교 교비회계 예산전용 보고: **보고완료**

(단위: 원)

연번	부서명	예산과목	기정예산액(A)	전용액(B)	전용후예산액 (C=A+B)
1	시설관리팀	지급수수료	31,500,000	-7,500,000	24,000,000
	총무팀	일반용역비	41,800,000	+7,500,000	49,300,000
	○전용사유: 2025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전 부서별 긴급 예산 전용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계획에 따른 감정평가 납부 비용 발생]				
2	한국어교육원	홍보비	20,000,000	-5,000,000	15,000,000
	한국어교육원	기타운영비	2,500,000	+5,000,000	7,500,000
	○전용사유: 동일부서 내 타 예산과목 간 금액 조정				
3	총무팀	예비비	34,000,000	-5,500,000	28,500,000
	총무팀	일반용역비	49,300,000	+5,500,000	54,800,000
	○전용사유: 커피전문점 건물인도 소송 변호사 수입료 납부 비용 발생				
4	총무팀	교원퇴직금	365,234,000	-120,000,000	245,234,000
	총무팀	직원퇴직금	255,000,000	-73,730,000	181,270,000
	총무팀	직원급여	627,658,000	+193,730,000	821,388,000
	○전용사유: 등록금회계 자금잔액 부족으로 비등록금회계 집행 중 해당과목 예산부족으로 인한 전용				

바. 기타안건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1호.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임원 선임(안)을 상정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지난회차에는 김대성이사과 김태근이사께서 간서명을 하였으니 금 번 회의에는 본인을 포함하여 김조용이사과 이정민이사께서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다.

(참 석 이 사) 동의하다.

7. 폐회선언

의장이 오늘의 이사회 마무리 발언에 이어 폐회선언이 있음. (* 2025.08.28.(목) 11:49)

이사

임정섭

이사

이정민

이사

김조용

2025.08.28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

임정섭



이사

강경래

(서명)

이사

김대성



이사

김조용



이사

김태근



이사

김현리

(서명)

이사

이정민



이사

성차용

(서명)